

韓-EU, AI·배터리 등 첨단기술 넘어 경제안보 공조 강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EU 수석부집행위원장과 교류 논의
‘미래지향적 파트너십 협력’ 의견
안정적 글로벌 공급망 구축 협력

한국과 유럽연합(EU)이 미래차·배터리 등의 첨단기술뿐만 아니라 ‘경제안보’에서도 상호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7일 서울 모처에서 헨나 비르쿠넨 EU 수석부집행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이 같은 첨단 산업·기술 분야에서의 전략적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미래차, 배터리에 더해 ‘공급망’이 협력 분야에 포함됐다. 이는 양측이 경제안보에도 중점을 둔다는 것.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면담은 최근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공급망 교란 등 급변하는 국제 경제환경 속에서 양측이 공동 대응과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가운데 추진됐다”고 밝혔다. 또 “기술주



벨기에 브뤼셀 소재 유럽연합(EU) 본부.

/AP 뉴스

권, 안보, 디지털전환 등 EU의 핵심 의제를 총괄하는 비르쿠넨 수석부집행위원장의 방한을 계기로 마련됐다”고도 전했다.

양측은 면담에서 한국과 EU가 오랜 기간 경제 및 기술 분야의 전략적 동반자로 협력해 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

어 앞으로는 경제안보와 첨단산업을 포괄하는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으로 협력을 한층 격상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우선 한국과 EU가 반도체 분야에서 상호보완적인 산업 구조(한국: 메모리 제조, EU: 차량용 반도체·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양측은 AI·미래차·배터리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AI와 관련해 우리 측은 EU의 산업 데이터플랫폼 ‘Manufacturing-X’를 벤치마킹한 한국형 Manufacturing-X의 구축 계획을 공유하고, 데이터 연계·활용의 상호 운용성 제고를 위한 협력을 제안했다. 또 산업 전반의 AI 확산을 위한 국제표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12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국제 AI 표준 서밋에 EU 측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미래차 관련 주요 협력 부문은 탄소 중립 달성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기차 전환, 충전 인프라 확충, 자율주행 통신·데이터 등으로 합의됐다.

배터리는 현지 수요 확대를 위한 EU 자원의 관심 및 지원을 요청했다. 우리

측은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EU 내 투자를 통해 첨단배터리 생산역량 및 공급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또 ‘EU 배터리법’의 후속 입법 일정 이 지연되면서 우리 기업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전달했다. 이에 입법과정에서 다른 정책과의 형평성 및 정합성 등을 고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밖에 ‘유레카(Eureka)’ 등 다자간 기술협력 플랫폼을 통한 성과를 재확인하고, 향후 첨단기술과 공급망 연대 차원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은 2009년 비유럽국 최초로 유레카에 가입한 이후 IT와 기계소재, 바이오 등의 분야에서 유럽과 산업기술 협력을 추진해 왔다. 2023년에는 이사국으로 선임된 바 있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EU 수석부집행위원장과 면담을 계기로 고위급 협의 채널을 활성화해, 논의된 의제들을 구체적인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사업체종사자 수 두달째 ↑… 건설업은 ‘한파’

고용노동부, 10월 사업체노동력조사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증가 견인
건설업 8.1만명 줄어 감소폭 확대

지난달 기준 국내 사업체종사자가 2개월 연속으로 1년 전보다 늘었으나 제조·건설·도소매업 종사자 수 감소는 지속됐다. 특히 건설업 감소 폭은 9월에 줄었다가 10월에 다시 확대됐다. 근로자 실질임금은 전년동월 대비로 5만 1000원 줄었다.

고용노동부가 27일 발표한 ‘2025년 10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사업체종사자 수는 2035만 6000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동월에 비교해 2만 3000명(0.1%) 증가한 수치다.

사업체종사자 수는 올해 1월 5만 5000명 감소한 이후 8월까지 반등하지 못하다가, 9월에 이어 2개월 연속으로 증가했다.

산업별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9만 9000명)이 증가세를 견인했다.

또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2만 9000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만 9000명)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9월 종사자 수 감소가 6만 1000명에 그치며 올해 최소 감소 폭을 기록했던 건설업은 10월 들어 8만 1000명 줄어들면서 폭이 다시 커졌다. 도매 및 소매업과 제조업도 각각 2만 5000명, 1만 7000명 줄었다.

규모별로는 상용 300인 미만에서 1682만 2000명으로 1년 전보다 2만 7000명 감소(-0.2%)했고, 300인 이상은 353만 4000명으로 5만 명 증가(1.4%)했다.

종사자 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는 2만 5000명 늘었고 임시일용근로자는 1만 8000명 증가했다. 기타종사자는 2만 명 감소했다.

10월 입직률은 4.3%로 0.4%포인트(p) 하락했고 이직률도 4.3%로 0.2%p 하락했다.

이직 사유별로는 자발적 이직은 24만 5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9.4% 감소했다. 비자발적 이직은 52만 9000명으

로 3.7% 감소했고, 기타 이직은 5만 1000명으로 2.7% 증가했다.

새로 채용된 인원은 상용직의 경우 26만 5000명으로 15.5% 감소했다. 임시일용직 역시 52만 명으로 5.7% 감소했다.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올해 9월 기준 433만 2000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인 2024년 9월(430만 1000원)과 비교해 3만 1000원 늘었다.

하지만 물가 수준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370만 1000원으로, 전년동월(375만 1000원)과 비교해 5만 1000원 감소했다.

김재훈 노동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지나해에는 추석이 9월, 올해는 10월이기 때문에 명절상여금 미지급으로 인해 특별급여가 감소한 영향이 있다”며 “우리나라는 음력을 기준으로 명절을 쇠기 때문에 임금에서 명절상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라고 설명했다.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 근로시간은 164.9시간으로 1년 전보다 25.4시간 늘어났다.

/세종=김연세 기자

소비쿠폰 효과, 가구당 실질소득 1.5%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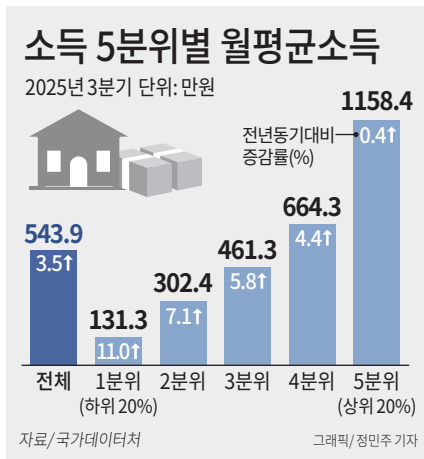
데이터터치, 3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이전소득’이 늘어나면서 올해 3분기 가구당 실질소득이 1.5% 증가했다. 특히 소득하위 20% 가구의 소득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국가데이터터치가 27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7~9월 1분위(소득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31만 3000원으로 전년 동분기에 비해 11.0% 늘었다.

1분위의 소득 증가율(11.0%)은 지난 2022년 2분기(16.5%) 이후 13개 분기 사이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랐다.

소득 항목별로 1분위에서 공적이전 소득이 전년 대비 28.7% 증가하며 가장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다. 공적이전 소득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아동수



당, 노인기초연금, 실업급여, 각종 한시 지원금 등 정부가 가구에 직접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을 뜻한다.

특히 이번 3분기 공적이전소득이 크게 늘어난 것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추경 기반 지원 정책으로 저소득층 소득이 직접적으로 뒷받침된 결과로 풀이된다.

/세종=김연세 기자

농협, 텃밭조성 등 ‘도시학교 스쿨팜’ 확대

농협중앙회는 각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도시학교 스쿨팜’을 전국으로 확대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우리 농산물의 소중함을 배우는 과정인데, 농협이 여러 분야에서 추진 중인 농심 전심운동의 일환이다.

농협은 그간 전북 등 일부 지역에서 시도교육청(교육지청), 지자체, 지역사회와 함께 학교 내 유휴시설을 활용해 스쿨팜을 운영해 왔다.

해당 학생들은 ▲텃밭조성 ▲씨앗심기 ▲수확 ▲관찰일지 작성 등으로 농업을 체험하고 식재료, 김장체험 등을 통해 우

리 농산물의 소중함을 배우고 있다. 또 시니어사업단(팜 코디네이터)을 통한 텃밭관리 및 교육도 실시 중이다.

2025년도 농협미래전략연구소의 농업·농촌에 대한 도시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4%가 초·중·고 교과과정 내 농업·농촌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선호하는 교육과정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 인식 교육(42%), 농촌생활 체험 실습(23%), 농업 분야 직업 교육(16%), 텃밭가꾸기(10%), 전통식문화 교육(김치의 역사, 장담그기 등) 순으로 조사됐다.

/세종=김연세 기자

수도권매립지공사 숙련도평가 전항목 ‘만족’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올해 실시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 및 미국 환경자원학회(ERA) 숙련도평가에서 모든 항목 ‘만족’ 판정을 획득했다.

이에 환경분석 전문가관으로서의 역량과 국제적 신뢰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공사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주관한 ‘국내 숙련도시험’에서 수질 16개, 폐기물 7개, 악취 8개 등 총 31개 항목 전부 만족 판정을 획득하며 종합평가 결과 ‘기관 적합’ 판정을 받았다.

/세종=김연세 기자

aT ‘빅스퀘어유니언 플러스’ 출범

7개 기관과 데이터 협의체 구성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국내 공공분야 빅데이터 플랫폼을 운영 중인 기관들과 데이터 협의체 ‘빅스퀘어유니언 플러스’ 출범을 선언했다.

27일 aT에 따르면 빅스퀘어유니언 플러스는 국내 데이터 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플랫폼을 활성화하기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기관 연합체다. aT는 농식품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인 농식품 빅데이터 거대소(KADX) 운영 주체로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협약에는 ▲농식품 부문(aT)을 비롯해 ▲공간융합(한국국토정보공사) ▲교통(한국교통연구원, 한국도로공사) ▲문화(한국문화정보원) ▲부동산(한

국부동산원) ▲산림(한국임업진흥원) ▲연안(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수산(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8개 운영기관이 함께했다.

이번 협약으로 ▲빅데이터 플랫폼 공동 홍보 ▲데이터 기반 협력과제 발굴 ▲데이터 기업 간 교류 확대 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추진될 예정이다. 또 디지털 정책 지원과 국가 AI 전략과제 실현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전망이다.

홍문표 aT 사장은 “aT는 협의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농식품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데이터·AI 정책 혁신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세종=김연세 기자